

Country Profile

스위스

2006년 6월 9일

오형범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hboh@kiep.go.kr]

주요 이슈

- 스위스-EU간 양자협정 발효
-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인상
- 연방하원, Swisscom 민영화 계획안 부결

차 례

I. 일반개황	3
II. 주요 경제지표	5
1. 최근 경제동향	5
2. 향후 경제전망	5
3. 대외경제관계	6
가. 품목별 수출입 현황	6
나. 지역별·국가별 수출입	7
다. 스위스의 해외직접투자(O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8
III. 경제현안	10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10
가. 경제성장	10
나. 물가	11
다. 노동시장	12
라. 교역	12
마. 외환시장	13
2. 주요 정치·경제현안	14
가. 스위스-EU간 양자협정 발효	14
나.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인상	15
다. 연방하원, Swisscom 민영화 계획안 부결	16
IV. 한국과의 경제관계	18
1. 교역	18
2. 투자	20
3. 기타 경제협력관계	22
4. 주요 통상현안	22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41,285 km² (남한의 약 1/3)
- 인 구: 744만 명 (2005년)
- 기 후: 온난성 기후 (여름(6월) 평균기온 : 13~24℃, 겨울(1월) 평균기온 : -3~2℃)
- 시 간 대: GMT보다 1시간 빠름(한국보다 8시간 늦음)

■ 행 정

- 공식국명: 스위스연방 (The Swiss Confederation)
- 수 도: 베른(Bern, 인구 123,000명)
- 주요도시: Zurich, Geneva, Basle, Lausanne

■ 정 치

- 국가형태: 연방공화제 (26개의 Canton 및 6개 Half Canton으로 구성)
- 정부형태: 스위스식 회의제 정부(7인 연방각료로 구성)
- 대 통 령: Mr. Moritz Leuenberger (2006년, 환경·교통·통신·에너지장관 겸직; 스위스 대통령은 7인의 연방각료가 1년 임기로 순환 담당)
- 의회형태: 양원제 (칸톤 대표회의<상원> 46명, 국민회의<하원> 200명; 임기 4년)
- 주요정당: 급진민주당(FDU; 상원 14석/하원 36석 2005년 2월 현재), 기독교민주당(CVP; 15석/28석), 사회민주당(SP; 9석/25석), 스위스국민당(SVP; 8석/55석), 기타 군소정당(0석/29석)
- 독 립 일: 1291년 8월 1일 (산악 3개 지역의 스위스연맹 결성일)

■ 사회 · 문화

- 민 족: 켈트족과 게르만족이 주류
- 언 어: 독일어(64%), 프랑스어(20%), 이탈리아어(6%), 로망슈어(1%), 기타(9%)
- 종 교: 가톨릭(42%), 개신교(35%), 기타(23%)
- 공 휴 일: 신정, 3월 25일, 3월 28일, 5월 5일, 5월 16일, 8월 1일, 12월 25-6일
- 도 량 형: 미터법
- 화폐단위: 스위스프랑(SwFr), 1 SFr = 100 Rappen(또는 Centime)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12월 19일

- 교민 현황: 약 2,000 명(추산)
 - * 스위스 통계청 집계(2004년 3월)에 따르면 체류자(국적취득자, 영주권자 및 단기체류자)는 약 1,289명
- 주요 협정체결 현황(발효일): 투자보장협정(1971. 9), 정기항공운항협정(1976. 11), 공업소유권협정(1977. 12), 사증면제협정(1979. 6), 이중과세방지협정(1981. 4), 정기항공운항협정 부속서 개정(1990. 8), 항공협정(1995. 5), 무역경제협정(1999. 6), 한-EFTA FTA 정식서명(2005. 12)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인구	백만 명	7.19	7.21	7.23	7.39	7.44
GDP(명목)	십억 달러	250.6	276.7	323.3	359.0	366.5
1인당GDP(명목)	달러	34,855	38,383	44,737	48,579	49,277
경제성장률	%	1.1	0.3	-0.3	2.1	1.8
실업률	%	1.7	2.5	3.7	3.9	3.8
소비자물가상승률	%	1.0	0.6	0.6	0.8	1.2
재정수지(GDP대비)	%	0.9	0.1	-1.5	-1.4	-1.5
수출	십억 달러	78.2	84.1	97.4	114.3	121.5
수입	십억 달러	76.8	79.1	91.8	106.8	114.7
경상수지	십억 달러	20.0	22.9	43.3	52.4	50.0
환율(연평균)	SwFr/달러	1.69	1.56	1.34	1.24	1.25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Analysis*. May 2006

2. 향후 경제전망

항목	단위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	2.3	1.7	1.8
소비자물가상승률	%	0.9	1.3	1.5
실업률	%	3.6	3.2	-
재정수지	%, GDP대비	-1.1	-0.9	-0.8
경상수지	%, GDP대비	13.9	13.5	12.3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Analysis*. May 2006.
EIU, *Country Report*, May 2006.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 출>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품목	1990	2004	2005
농산물 및 임산물	2,998	4,781	5,103
섬유, 의류, 신발	4,984	3,856	3,797
화학품	18,425	49,445	54,669
철강	7,537	11,066	11,601
기계, 전자	25,527	33,479	34,815
운송기기	1,485	4,376	3,488
기구, 시계	13,330	24,195	27,105
합계	88,257	141,735	151,456

자료: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2006).

<수 입>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품목	1990	2004	2005
농산물 및 임산물	8,095	10,435	10,904
섬유, 의류, 신발	8,806	8,619	8,758
화학품	10,624	29,467	32,667
철강	9,025	11,492	12,262
기계, 전자	19,794	27,318	29,548
운송기기	10,230	13,567	13,380
기구, 시계	5,786	8,174	8,908
합계	96,611	132,423	143,160

자료: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2006).

■ 지역별·국가별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2003	2004	2005
< 수 출 >			
EU25	55,514	59,150	62,580
독일	18,568	19,277	19,832
프랑스	7,795	8,329	8,705
이탈리아	7,359	7,938	8,152
영국	4,322	4,862	5,457
스페인	3,124	3,845	4,235
오스트리아	2,940	3,093	3,253
네덜란드	2,895	2,844	3,520
벨기에	1,743	1,783	1,839
미국	10,035	10,043	11,196
일본	3,555	3,704	3,799
중국	1,614	1,992	2,219
터키	1,083	1,253	1,268
< 수 입 >			
EU25	69,563	73,142	78,382
독일	27,554	29,463	31,284
프랑스	9,190	8,882	9,096
이탈리아	9,112	10,115	10,452
영국	3,461	3,595	4,274
스페인	2,002	2,205	2,540
오스트리아	3,607	3,842	4,349
네덜란드	4,260	4,474	4,826
벨기에	2,595	2,701	3,037
미국	4,709	4,627	5,283
일본	1,796	1,898	1,814
중국	1,588	1,831	2,140
터키	285	332	374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May 2006

다. 스위스의 해외직접투자(O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 스위스의 ODI와 FDI 규모(실행기준)

(단위: 백만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해외직접투자(ODI)	33,276	44,673	18,240	7,859	15,112	25,207
외국인투자(FDI)	11,719	19,255	8,856	6,276	16,564	4,478

자료: United Nations.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 국별 純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유로, %)

	2002	2003
	투자액	투자액
EU 15	7,340	5,992
영국	261	422
독일	247	303
룩셈부르크	-2,956	4,148
프랑스	985	-1,873
네덜란드	1,505	576
벨기에	2,036	2,634
스페인	480	27
이탈리아	773	-1,877
스웨덴	3,002	401
중·동구 (CIS 포함)	1,587	315
러시아	151	-15
EFTA	791	39
미국	3,401	6,672
중국	-64	-188
일본	-640	-165
중남미	-246	3,261
합 계(기타 포함)	12,249	20,351

자료: 日本貿易振興會, ゴットロ貿易投資白書, 2005年版.

■ 국별 純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 유로, %)

	2002	2003
	투자액	투자액
EU 15	7,976	13,777
네덜란드	297	6,258
독일	-321	-535
프랑스	2,685	1,016
룩셈부르크	306	149
영국	4,726	1776
이탈리아	410	-96
벨기에	-266	4,818
스웨덴	189	262
스페인	34	29
EFTA	133	72
미국	2,883	7,354
일본	-291	-263
중남미	42	848
합 계(기타 포함)	9,783	22,306

자료: 日本貿易振興會, ゴットロ貿易投資白書, 2004年版.

Ⅲ. 경제현안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성장

■ 스위스 경제는 2003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2004년 이후 경기회복세로 접어들었음.

- 2003년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했던 스위스 경제는 2004년 2.1%, 2005년 1.8% 성장세를 보임.

o 이는 유로지역 경제의 회복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1990년 초반부터 지속된 스위스 경제의 성장 둔화 추세가 반전되고 있음을 의미함.

- 대외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한 2004년과는 달리 2005년은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증대가 성장을 이끌었음.

o 2005년 스위스 경제는 설비투자 및 건설 부문이 활성화되어 실질고정투자가 3.1% 증가함으로써 내수를 주도한 반면, 민간소비와 공공지출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 2005년 4/4분기는 재고투자의 급증에 따라 전기대비 0.5% 성장하여 4분기 연속으로 0.5% 이상 성장률을 기록함.

-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경제는 2006년 1/4분기에도 전기대비 0.9%(잠정치)를 기록하여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음.

■ 스위스 경제는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호조세 지속과 내수회복에 힘입어 2006년 2.1%, 2007년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실질임금 증대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이며, 2005년 부진했던 기업투자가 살아나는 반면 주택건설 수요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의 경우 신흥시장의 자본재 수요 증대와 세계 교역의 건실한 성장세에 힘입어 2006-07년에 호조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2006년에 재고투자 감소에 따라 하락하였다가 2007년에는

내수확대에 따라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스위스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3	2004	2005				2006
			1/4	2/4	3/4	4/4	1/4*
EU - 25 유로지역	1.1 0.7	2.4 2.1	0.3 0.3	0.5 0.4	0.7 0.7	0.4 0.3	0.6 0.6
독 일	-0.2	1.6	0.6	0.4	0.6	0.0	0.4
프 랑 스	0.8	2.3	0.3	0.1	0.7	0.4	0.5
이탈리아	0.3	1.2	-0.4	0.6	0.3	0.0	0.6
스 페 인	2.9	3.1	0.8	0.8	0.9	0.9	0.8
네덜란드	-0.1	1.7	-0.7	0.7	0.7	0.6	0.2
영 국	2.5	3.2	0.2	0.5	0.5	0.6	0.6
스 위 스	-0.3	2.1	0.5	0.9	0.9	0.7	0.9

주: 분기별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이며, 2006년 1/4분기는 잠정치임.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Analysis, May 2006.

Eurostat, Euro-indicators, June 2006.

나. 물가

■ 물가상승률은 지속되는 고유가 현상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6년 2월 1.4%까지 올라갔던 물가상승률은 1/4분기에 평균 1.2%를 기록한 이후 4월에는 1.1%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함.

○ 이는 유로지역의 2006년 1/4분기 물가상승률 2.3%의 절반 수준임.

- 원유가격 급증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으나, 근원 인플레이션이 0.4-0.5%에 머물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편임.

○ 국내물가 상승압력이 낮은 이유는 정보통신 부문의 경쟁이 강화되어 이동통신 요금이 많이 하락하였고, 할인점의 증대로 소매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임.

■ 2005년 평균 1.2%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6년 0.9%로 떨어졌다가 2007년에 다시 1.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는 올해에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2007년에는 그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보임.
- 2006년말에 에너지세(稅)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물가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한편 새로운 법안 및 행정조치의 도입과 독일의 거대할인점 진출 등으로 경쟁이 강화됨으로써 물가상승 압력은 계속 줄어들 것임.

다. 노동시장

-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스위스의 고용률은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05년 4/4분기 고용률은 전년대비 0.3% 증가하여 2002년 3/4분기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함.
 - o 제조업과 건설 부문에서의 고용이 각각 전년대비 1.2%, 1.4% 증가한 반면 서비스 부문은 전년 수준과 변함없는 상태를 보임.
 -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고용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3월 실업률은 3.5%로 떨어짐으로써 200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o 스위스의 실업률은 2001년 1.7%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에 4%대까지 치솟았다가 3%대를 유지하고 있음.

라. 교역

- 스위스의 대외부문은 2006년 1/4분기에 기록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함.
 - 2006년 1/4분기 무역수지는 28억 스위스 프랑(2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2005년 2/4분기에 29억 스위스 프랑으로 사상 최고의 흑자폭을 기록한 다음으로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함.
 - 수출은 스위스 프랑의 약세와 해외수요의 증대로 전년대비 16.1% 증가함.

- 특히 정밀기기, 기계 및 전자 부문의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EU와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14.6%, 18%로 대폭 늘어남.
- 수입도 대폭 증가하여 전년대비 12.9%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원유가격 급증에 따라 에너지 제품의 수입이 무려 전년대비 53% 증가함.
- 스위스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 지면서 자본재(특히 대형 항공기)의 수입이 무려 167%나 급증하였으며, 소비재도 10.3%의 증가율을 기록함.

라. 외환시장

- 스위스 프랑화는 2005년에 유로당 1.54-1.56스위스 프랑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06년 2월 이후 약세가 강화되고 있음.
- 2006년 4월 현재 유로당 1.58스위스 프랑을 기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스위스 프랑의 약세는 유로지역 금리인상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였기 때문임.
- 스위스 프랑은 유로지역 경제회복에 따른 유로화 가치의 상승으로 2006년에는 약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safe haven’ 통화로서 스위스 프랑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과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스위스 프랑화 자산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스위스 중앙은행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스위스 프랑의 수요 증대로 평가절상 될 경우 시장에 개입하여 스위스 프랑의 가치를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려 하지만 개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2. 주요 정치·경제현안

가. 스위스-EU간 양자협정 발효

■ 2006년 4월 1일 스위스와 EU간 3개의 양자 협정이 발효함.

- 첫 번째는 지난 2002년 6월 발효한 스위스-EU간 양자 협정 I 중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한 협정을 제5차 EU확대에 따라 신규 가입한 중·동구 신규회원국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임.
- 나머지 2개 협정은 스위스-EU간 양자 협정 II 중 지난 2004년 5월 정치적 승인을 획득한 환경 및 시청각 정책(예를 들어 영화 진흥 및 시청각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의 협력에 관한 것임.

■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한 협정의 확대 적용 문제는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됨.

- 양자협정 I 에 포함된 다른 협정들이 자동적으로 EU의 신규가입 회원국들에게 확대 적용되는 반면,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한 협정은 정치·경제적 민감성을 갖고 있어 예외가 인정되었음.
-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한 협정의 확대적용은 중·동구 국가의 값싼 노동력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스위스인의 직업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실업률을 증가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와 달리 2005년 9월에 있던 국민투표에서 동 협정은 56%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스위스 노동시장이 중·동구 신규회원국에게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옴.

o 다만 스위스 정부는 2011년까지 중·동구 이주민의 수를 제한하는 쿼터를 부과할 수 있음.

■ 스위스는 EU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대신 EU와 다양한 양자간 협정을 맺음으로써 경제 분야를 비롯한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

- 스위스와 EU 간에는 현재 80여개의 양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15개 공동위원회를 통해 동 협정들이 운영되고 있음.
- 1992년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개별회원국 간에 체결된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이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위스와 EU는 7개 분야

에 대한 양자협정 I을 체결하게 되었음.

- o 양자협정 I은 1999년 서명되어 2002년 초에 발효하였는데, 사람의 자유이동, 농산물 교역, 정부 조달, 적합성 판정, 항공운송, 도로 및 철도 운송, 제5차 연구개발 프로그램 체제에의 참여 등 7개 분야를 다루고 있음.
- 양자협정 I에 이어 2002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양자간 협정 II는 총 9개 분야(저축세, 가공 농산물 제품, 통계, 환경,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연금, 쉥겐/더블린 협정, 관세위반)에 대한 개별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12월에 공식 서명식을 가진바 있음.
- 양자간 협정 II 중 가장 중요한 협정인 사범공조 및 공동난민정책과 관련된 쉥겐/더블린 조약 가입 관련 협정과 관세위반에 관한 협력협정은 2005년 9월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가결되었지만 EU의 비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임.
- o 이는 EU회원국 중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3개국이 스위스가 기여하고 있는 결속기금(Cohesion Fund)이 중·동구 신규 회원국에게만 지원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동 협정의 비준을 미루고 있기 때문임.

나.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인상

■ 스위스 중앙은행(Swiss National Bank)은 지난 3월 16일 열린 정책이사회에서 정책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함.

- 이는 지난 2004년 6월, 9월 그리고 2005년 12월에 0.25% 포인트 인상된 이후 4번째 인상 조치로 기준금리가 1.25%가 됨.

o 스위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범위(target band) 또한 0.25%포인트 인상된 0.75~1.75%가 됨.

-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번 금리인상 배경으로 스위스 경제의 뚜렷한 회복세를 들고 있음.
- 또한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도 스위스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스위스 중앙은행은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음.

- 스위스 중앙은행 부총재는 현재의 낮은 금리수준이 장기적인 물가안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음.
- 경제예측기관인 EIU는 스위스가 3, 6, 9월에 있을 정레이사회에서 잇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여 2007년에는 2.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스위스 경제의 회복세가 아직 지속될지 불확실한데다 금리인상이 스위스 프랑화의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스위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다. 연방하원, Swisscom 민영화 계획안 부결

■ 스위스의 연방하원(National Council)은 5월 10일 국영 정보통신회사인 Swisscom의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던 정부안을 부결시킴.

- 지난 4월 5일 연방하원에 회부된 Swisscom 민영화 법안은 반대 99, 찬성 90으로 부결되었음.
- 동 법안은 외국자본에 의한 기업지배를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부결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
- Swisscom의 완전민영화 계획은 지난 20년간 저성장 추세를 보인 스위스 경제의 회복을 위해 스위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환경 향상을 위한 조치의 일환임.
- 스위스 연방정부가 62.45%(160억 스위스 프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wisscom은 완전 민영화를 통해 Swisscom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정부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연방하원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민영화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연방하원에서 부결된 이 법안은 연방상원의 심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으며, 상원이 외국자본의 기업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수정법안의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이 법안이 연방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에 회부될 가능성이 큰데, 2002년 전력

시장의 자유화 조치에 스위스 국민이 거부의를 표명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Swisscom의 완전 민영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 그러나 스위스 연방정부는 과거 주요 개혁조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Swisscom의 완전 민영화 계획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많음.
- 더욱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유럽시장에서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위해서는 Swisscom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여론의 지지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IV. 한국과의 경제관계

1.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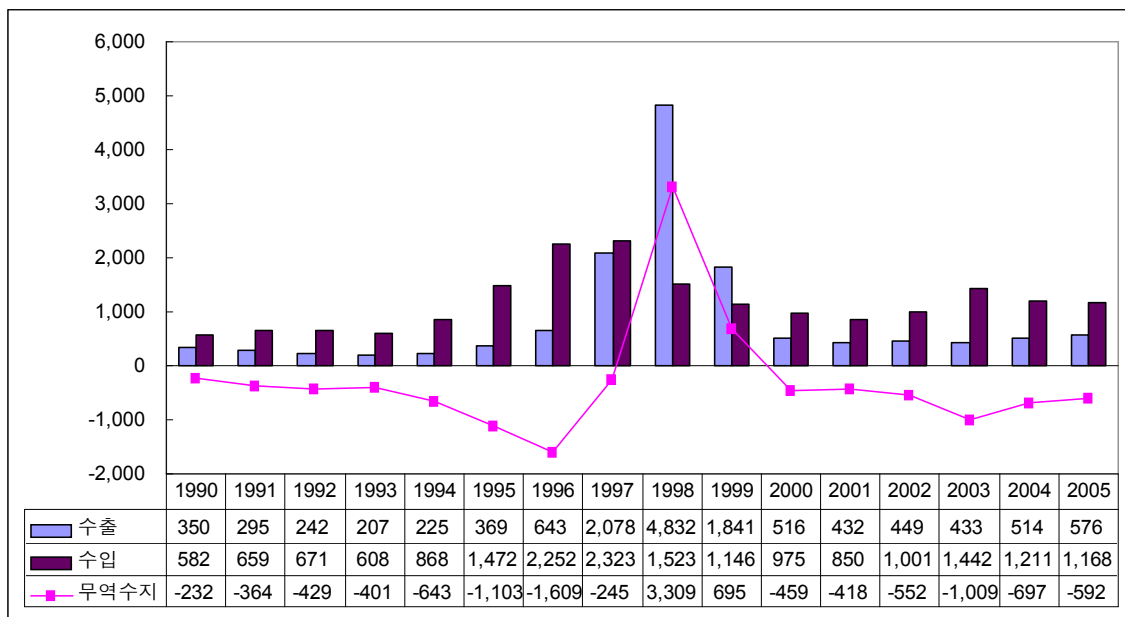
- 한국과 스위스간의 교역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로 인해 1990년대에 접어들어 급격히 증대해 오고 있음.

- 1990년 양국간 교역은 9억 3천만 달러정도의 수준이었으나, 1997년에는 44억 달러, 1998년에는 6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였음.

- 그러나 IMF 사태로 인한 한국의 경기침체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18억 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스위스는 EFTA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임.

< 한-스위스 교역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한국의 對스위스 교역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 IMF 사태 이후 금수출로 인해 1998년과 1999년 무역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o 다만 적자폭이 2003년 10억 달러에 달했다가 이후 폭이 감소 추세에 있음.

■ 스위스는 시계 등 정밀기계, 의약 및 화학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 우리나라와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어 교역확대의 여지가 큼.

- 한국의 對스위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핸드폰, TV, DVD Player, TFT-LCD 모니터, 선박, 금, 타이어 및 튜브 등임.

- 對스위스 수출은 고품질의 고가품이 대부분인데, 이는 스위스가 산업구조상 고부가가치제품만 국내 생산하고 있고 여타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한국의 對스위스 수출은 향후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품목별 수출 내역(MTI 4단위, 금액순, 상위 10품목)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승용차	514	18.6	576	12.2
2	무선전화기	57	46.4	217	23.4
3	선박	0	-	34	-
4	금	102	31.9	34	-66.8
5	칼라TV	30	70.5	25	-17.7
6	타이어	12	37.8	16	27.9
7	보조기억장치	8	171.2	13	72.9
8	그림	1	-	9	930.4
9	화물자동차	6	62.1	6	2.4
10	VCR	6	230.3	5	-7.9
총수출		514	18.6	576	12.2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스위스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시계, 칼을 비롯한 정밀기계와 의약품, 화학제품 등임.

o 현재 한국 수출제품에 사용되는 정밀기계류의 상당부분을 스위스로부터 수입할 정도로 스위스의 정밀기계는 그 정밀성이나 품질이 뛰어나.

< 품목별 수입 내역(MTI 4단위, 금액순, 상위 10품목)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의약품	99	27.1	123	24.2
2	금속절삭가공기계	60	28.8	84	38.6
3	시계	66	10.4	74	13.0
4	기타정밀화학원료	44	46.4	56	25.7
5	펌프	49	49.6	53	10.0
6	동괴 및 스크랩	32	66.2	36	11.2
7	원동기	68	213.6	32	-53.2
8	의료용기기	23	9.8	30	31.2
9	계측기	23	49.0	25	9.5
10	금	134	-23.7	24	-32.5
총수입		1,211	-16.0	1,168	-3.5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2. 투자

■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는 1968년부터 2005년 말 현재까지 총 13건에 5,397만 달러로 저조함.

- 이는 스위스가 고물가, 고인건비로 생산비용이 여타 유럽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고용조건도 매우 까다로워 투자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임.

○ 그러나 스위스의 고도화된 첨단기술이나, 숙련노동력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제품에 대한 투자는 적합하다고 사료됨.

○ 또한 높은 인건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의약, 시계, 금융서비스 산업에서도 스위스의 높은 경쟁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스위스 정부도 IT분야의 외국기업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스위스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는 종근당, 오리엔트, LG화학, 대한항공, 고려제강, GM대우, 영원무

역 등이 있음.

- 현재 스위스 연방정부로부터의 특별한 외국인 투자인센티브는 없으나 일부 지방정부(canton)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세금감면, 공장부지 제공, 금융알선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의 對스위스 투자 추이 >

(단위: 건, 천 달러, 신고기준)

2001		2002		2003		2004		2005		총누계 (1968~200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138	2	22,085	0	3,441	1	16	1	3,671	13	53,97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2006. 5

- 스위스의 對韓투자는 1962년부터 2005년 말 현재까지 총 417건에 10억 9,612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한국의 투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스위스의 투자는 주로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전략과 한국의 높은 생산력과 기술력에 힘입어 스위스 기업들의 투자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 o 한국에 진출해 있는 스위스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Nestle(식품), Novartis(의약품), Clariant(특수화학), ABB(중전기), M.Dohmen SA(화학), Balzers(자동차 부품) 등임.

< 스위스의 對韓 직접투자 추이 >

(단위: 건, 천 달러, 신고기준)

2001		2002		2003		2004		2005		총누계 (1962~200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	45,894	16	30,649	20	20,883	30	70,354	23	40,253	417	1,096,128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2006. 5.

3. 기타 경제협력관계

- 스위스가 회원국으로 있는 EFTA와의 FTA가 타결되어 2005년 12월 15일 공식 서명 절차를 가짐.
 - 한-EFTA FTA 협상은 2005년 1월 시작되어 6개월여 만에 최종 타결되었으며,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2006년 7월 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한-EFTA FTA가 체결됨으로써 EFTA는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FTA를 맺은 세 번째 대상국이 되었으며 한국이 FTA를 맺은 최초의 유럽 선진경제권임.
 - o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EU에 속하지 않은 선진 유럽국가들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소득 국가들임.
 - EFTA와의 FTA가 체결됨으로써 양자간에는 상품무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게 되었음.
 - 한국과 EFTA는 기본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FTA를 통해 양측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 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EFTA라는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서비스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또한 한-EFTA FTA는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을 줄 것임.

4. 주요 통상현안

- 스위스는 자유무역주의 정책을 준수하고 있어 한국과의 교역에서 특별한 통상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한국에 대한 특별한 무역규제도 없음.
 - 다만, 스위스는 기술규격 인증 및 표준제도와 라벨링 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한 것과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한 것이 교역에 있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